

국내 최대 ‘앙리 마티스’展… 예술의전당서 열려

‘가우디움 어소시에이츠’3번째 프렌치 아티스트
200여점의 마티스 원작, 미디어아트 전시
마티스가 꽃피운 모더니즘의 태동 느낄 수 있어
뮤지션 정재형, ‘마티스展’ 위해 신곡 작곡

아수파(fauvisme)의 창시자,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삶과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Henri Matisse: LIFE & JOY)’ 전시회가 2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색채의 황홀 - 마리 로랑생’ ‘매그넘 인 파리’전(展)에 이어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 어소시에이츠’가 세 번째로 선보이는 프렌치 아티스트 시리즈,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는 드로잉·판화·일러스트·아트북 등 마티스가 남긴 200여점의 방대한 원화 작품을 선보인다. 지금껏 한국에서 열린 마티스 단독 전시회 가운데 최대 작품 점수를 자랑한다.

마티스는 ‘아수파의 창시자’를 넘어서 드로잉과 판화를 통해 대답하면서 단순하고 아름다운 선과 형태를 만들어낸 ‘선의 연금술사’이기도 했다. 또 장르의 경계를 탈피한 ‘컷 아웃’과 시대를 앞서 간 아트 북 디자인, 일러스트 등을 통해 현대 모더니즘과 20세기 그래픽 아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전파한 그래픽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이런 배경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와 재스퍼 존스, 제프 쿤스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현대 미술에 미치는 광범

위한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마티스는 색채에 앞서 ‘선’에 집중한 화가로, ‘선’을 관능적이고 유려하게 표현했다. 그는 오직 선과 명암, 그림자만으로 대상의 살아 있는 혼을 담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마티스의 ‘선의 미학’을 섬세히 들여다보고, 면(面)과 색(色)의 예술적 확장을 이룬 마티스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조망해 보는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드로잉과 판화 원작을 집중 조명하는 전무후무한 전시회가 될 것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 전시에서 우리는 마티스의 손끝에서 태어난 예술 세계로 직접 들어가 보는 동시에 그가 관조한 삶의 서사를 마주하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마티스의 압도적인 드로잉과 판화를 통해 예술가의 시선으로 본 세상을 탐구하고, 그가 꽃피운 모더니즘의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티스는 위대한 화가인 동시에 20세기가 낳은 그래픽 아트의 거장이기도 했다. 판화와 일러스트, 북 디자인, 카펫 등의 섬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양한 장르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고, 오늘날 현대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술사학자 윌리엄 리버먼은 일러스

트 분야에서 당대에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예술가는 아무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1941년 십이지장 암 수술 이후 두 차례의 폐색전증을 이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마티스는 병상에서도 예술에 대한 집념을 불태웠다. 수술 부작용으로 위하수증을 앓게 된 마티스는 오래 서있는 것이 불가능해져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다. 그런 그에게 북 일러스트 작업은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일러스트 작업은 육체적으로 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됐다. 1943년부터 1947년까지 마티스는 ‘Visage(비지시)’, ‘리플리(Repli)’, ‘포르투갈에서의 편지(Lettres Portugaises)’, 보들레르 시집 ‘악의 꽃(Les Fleurs du Mal)’과 피에르 드 롱사르와 찰스 드 오를레앙의 시집과 루이 아라공 시집의 일러스트를 제작했다. 18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은 그의 예술 타임라인에 있어 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작품 활동은 20세기 시각 예술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는 마티스의 원작 200여점과 함께 영상, 미디어아트, 사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결집여지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뮤지션 정재형이 전시의 음악감독을 맡은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새롭게 곡을 작곡한 정재형은 마티스가 있던 시절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전시의 울림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여기에 ‘오디오 도슨트’를 맡은 정재형의 낭만적인 목소리가 전하는 전시 해설도 이번 마티스 전시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대 포인트다.

전시 인트로에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영화상을 수상해 주목받고 있는 재벌 영화감독 장유록이 프랑스니스 바닷가의 파도 소리, 마티스의 고향 평원의 바람 소리 등을 담아낸 영상을 선보인다.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치유를 선사하고자 했던 마티스의 숨결이 소리와 영상으로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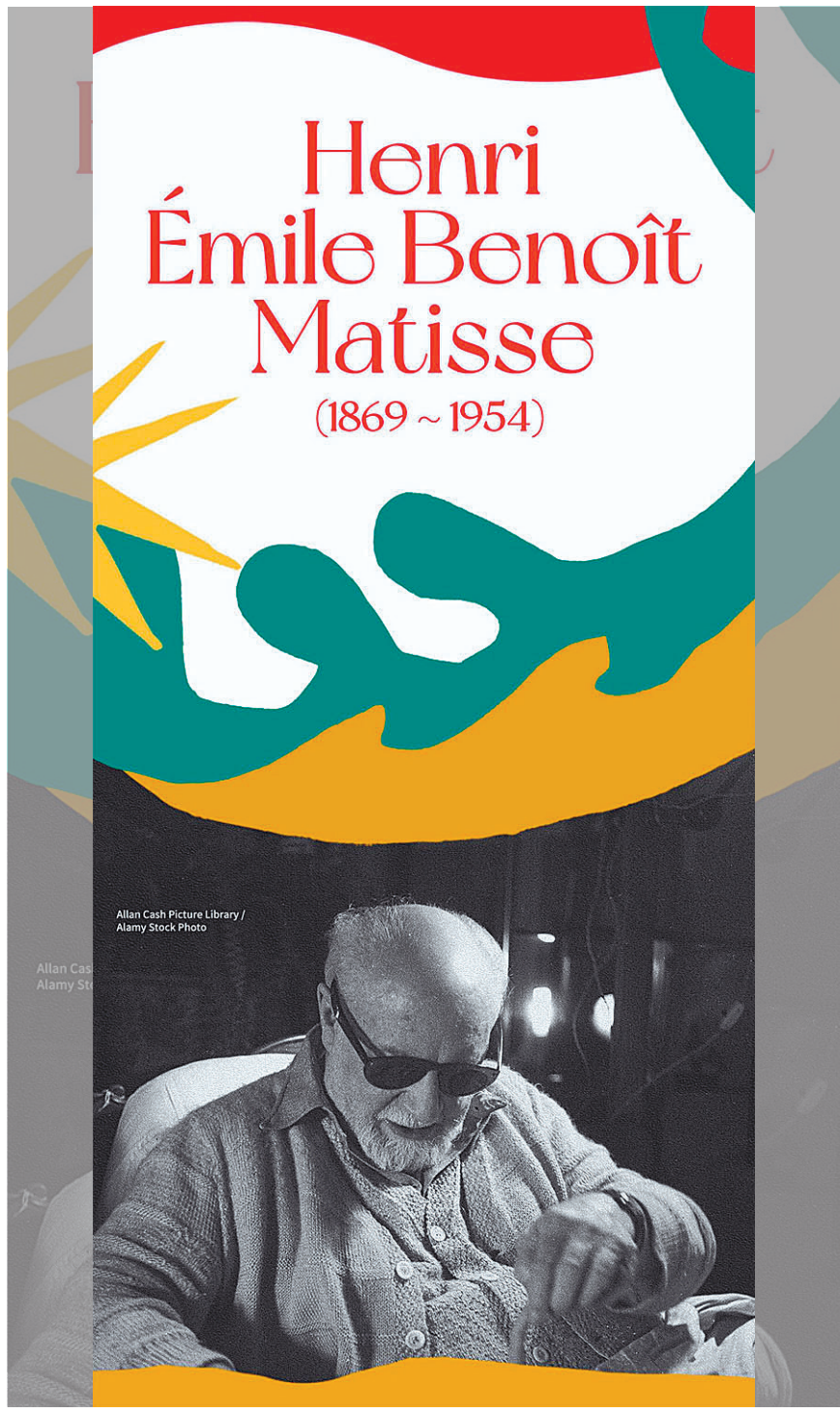
코엑스, 현대모터스튜디오, 젠틀몬스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그룹 스튜디오 아텍(김성필, 박문석)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마티스의 색(色)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마티스의 작품으로는 지금껏 다뤄진 적 없는 형식의 접근을 통해 마티스의 강렬하고 아름다운 색채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도예작가로 영국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한국 전통 도예의 정수를 알려진 지산 이종능 작가는 도예 작품으로 마티스의 작품 세계를 재해석한다.

‘마리 로랑생’과 ‘매그넘 인 파리’전에서 각각 나전 칠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온 옷칠작가 이용선은 마티스의 ‘춤’을 형상화 한 대형 병풍과 그의 회화를 모티브로 한 옷칠 기법의 평면 작품 2점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미술을 통한 치유 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 마티스의 작품과 예술 세계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조광형 기자 thesaman@naver.com



사진=예술의전당

방시혁·황동혁·이회성… ‘올해의 50인’ 선정

블룸버그 “방시혁, 방탄소년단 배출한 ‘케이팝 히트 메이커’”
“황동혁, ‘오징어게임 브레인’… 최고의 드라마 만들어”
“이회성,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성공적 견인”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Bloomberg Businessweek)’가 뽑은 ‘올해의 50인(The Bloomberg 50)’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롯한 한국인 3명이 포함됐다.

지난 1일(현지 시간) 공식 웹사이트에 ‘블룸버그 50’ 기사를 실은 블룸버그는 방시혁 의장과 황동혁 감독,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 등이 포함된 50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블룸버그는 “방시혁 의장은 지난 4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이타카 홀딩스 인수에 성공, K-팝을 미국 음악 산업의 중심으로 올려놨다”며 “K-팝이 글로벌 음악 차트를 정복하는데 새로운 이정표

를 세웠다”고 호평했다. 하이브가 지금과 같은 성장 반열에 오르고, 혁신을 통한 성장이 지속되도록 큰 흐름을 만들어 온 승부사 같은 선택들이 선정 배경이 됐다는 뜻이다.

이어 “방시혁 의장이 한국을 넘어 가장 큰 무대를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소개한 블룸버그는 하이브가 미국 본사인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펼쳐나갈 성취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지난 7월, 방시혁 의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의장직에 집중하기로 한 리더십 구조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본인의 전문 영역인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지속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라는 점을 짚었다.



좌측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 황동혁 감독,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 사진=블룸버그 공식 홈페이지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을 가리켜 “‘오징어 게임’의 브레인”이라며 “그가 만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억4000만명 이상이 시청한, 넷플릭스 사상 가장 인기 있는 TV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여태껏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이렇게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며 “황 감독은 오래 전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456억원의 상금

을 타기 위해 소시민들이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반드시 ‘오징어 게임2’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이회성 의장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발간을 이끈 공을 추어 올리며 “기후변화가 인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조광형 기자 thesaman@naver.com

“육일기는 전범기입니다”

서경덕, “분데스리가에 알려”



‘전 세계 육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18개 전 구단에 “육일기는 전범기”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럽 4대 축구리그에서 육일기 사용에 관한 제보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최근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관중석 응원에 육일기가 버젓이 사용된 제보들이 있어 18개 전 구단에 육일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는 FIFA의 산하 기관인 AFC에서 2017 챔피언스리그 예선경기 당시 육일기 응원을 펼친 일본 가와사키 구단에

벌금 1만5000달러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의 ‘육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은 영상과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에서 육일기 문양을 사용했다가 없앤 사례집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유럽 축구리그에서 육일기 문양이 등장했다고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광형 기자 thesaman@naver.com

신간 서적					
2050 수소에너지 백문석 외 지음 라운북 펌 320쪽 20,000원 국내 환경공학자들이 쓴 책 ‘2050 수소에너지’는 수소에너지가 가져올 미래는 무엇이고 그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주력해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수소에너지란 무엇이며 왜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 지 등 수소에 관한 기초 지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2050 탄소중립 전략,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대응책은 물론 천연가스와 블루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수소의 종류와 각 특징에 따른 생산 방법까지 자세히 다뤘다.	민중주의가 안전한 세상 G. 존 아이켄베리 지음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펌 536쪽 30,000원 저자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균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무역, 동맹, 다자주의, 인권, 이민, 법치, 민주 진영의 결속 등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질서를 훼손했다. 후퇴했고 비자유주의, 독재, 민족주의, 보호주의, 영토 수점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확산과 기후변화, 테러리즘, 무기 확산 같은 문제에도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 반기문 지음 김영사 펌 712쪽 28,800원 책은 반기문 전 총장이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자 단호하게 결심하고 활동해 온 역사를 정리한다. 분쟁·재난 지역을 찾아 나서 세계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유엔 여성기구를 창설하고 성소수자 포용 노선을 견지한 그의 활동상에 관한 기록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타결도 끌어낸 과정도 담겼다. 반기문 전 총장은 책에서 “우리에게는 행동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패한 자들을 기소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여성 권리를 강화하며 젊은이에게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당신을 위한 클래식 전영범 지음 비엔케이 펌 275쪽 15,800원 클래식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이다. 1부 ‘클래식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에서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푸치니, 베르디 등 가난과 고독, 실연을 무릅쓰고 예술혼을 불태운 클래식 음악사의 거인들과 카라얀, 필름, 레를 등 현대 유명 연주자의 삶과 작품을 소개한다. 2부 ‘힘 빼고 듣는 클래식’에서는 예술가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소통, 교감의 방식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3부 ‘클래식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에서는 일반인들이 클래식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해준다.	그들은 로마를 만들었고, 로마는 역사가 되었다 김덕수 지음 21세기북스 펌 248쪽 16,000원 이탈리아산골에서 시작된 로마는 지중해를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뻗어 2200년 동안 대제국을 이뤘고,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됐다. 한국 역시 로마의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 ‘공화국’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에서 로마 공화정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고, 한국 사회의 주요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 역시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아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 책은 로마 제국을 일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등 리더 4인의 업적과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시대 전환을 이루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강동완 지음 너나드리 펌 448쪽 35,000원 생활 쓰레기 포장지를 분석해 북한 제품의 브랜드와 디자인, 생산공장 현황 그리고 정치선전을 엿보자는 의도로 저술된 책이다. 책 본문에는 “아무리 거리가 가깝다 해도 북한 제품 포장지가 백령도 해안에 쌓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소비품에 굳이 디자인과 브랜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는 생각은 아예면 선입견이었다”고 쓰여졌다. 서해5도에서 습득한 제품 포장지 중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조미료인 ‘맛내기’였다. 저자는 “하날물 주운 생활 쓰레기는 북한사회를 읽는 소중한 자료이자 보물이 됐다”고 했다.